

설날 차례상



명절 차례상 차림

제주가 차례상(신위를 모시는 쪽)을 바라보아 앞쪽이 북, 오른 쪽을 동, 왼쪽을 서로 한다. 지역이나 집안의 전통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 차례상은 5줄로 진설하는데, 제주 앞쪽에서부터 과일, 반찬, 탕, 적과 전, 술잔과(앞에서 보아 왼쪽에) 명절음식을 놓는다.

(1) 5번줄 : 과일을 놓는 줄로 “조율이시”라 하여 동쪽부터 대추, 밤, 배(사과), 감(곶감)의 순서로 차리거나, “홍동백서”라 하여 붉은색 과일은 동쪽, 흰색 과일은 서쪽에 차리며(대추는 동쪽에, 밤은 서쪽에), 그 이외의 과일은 순서가 없으나, 나무과일, 넝쿨 과일 순으로 놓는다. 과일 줄의 끝이나 가운데에 과자류를 놓는다. 고례에는 어떤 예서에도 과실별 위치가 명시 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계절과 지방에 따라 과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는 그렇지 않으므로 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2) 4번줄 : 반찬을 놓는 줄로 “좌포우혜”라 하여 왼쪽 끝에는 포(북어, 대구, 오징어포)를 쓰며, 오른쪽 끝에는 식혜류(수정과)를 놓는다. 그 중간에 삼색 나물을 놓는데 푸른색은 시금치·쑥갓, 갈색은 고사리·고비나물, 흰색은 무·숙주·도라지 나물 등이 적당하며, 간장과 침채(동치미) 등은 그 다음에 올린다.

(3) 3번줄 : 탕을 놓는 줄로 보통 육탕(육류), 소탕(두부와 채소류), 어탕(어패류)의 순으로 올리며 요즘에는 한 가지 탕으로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4) 2번줄 : 적과 전을 놓는 줄로 육적(고기류 적), 어적(생선류의 적), 소적(두부, 채소류 적)의 순서로 올린다. “어동육서”의 원칙에 따라 생선은 오른쪽, 고기는 왼쪽에 놓는다. 생선은 머리가 오른쪽으로 배가 신위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적은 생선이나 고기를 대꼬챙이에 꿰어 양념하여 구은 음식이며, 전은 밀가루를 묻혀서 지진 음식(부침개)를 말한다.

(5) 1번줄 : 술잔과 명절음식을 놓는 줄로 앞에서 볼 때 명절 음식은 오른쪽에 술잔은 왼쪽에 올린다. 시접(수저를 놓는 빈 대접)은 단위제(한분을 모신)인 경우에는 앞에서 볼때 왼쪽에 위치에 놓으며, 양위 합제(두분을 모신)의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 놓는다. 축문, 향로, 향합은 차례상 앞에 따로 마련한 향상위에 놓으며, 그 밑에 모사그릇 퇴주그릇, 제주(술) 등을 놓는다.

설의 명칭과 유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은 설이다. 한때는 조상의 차례나 모시는 날쯤으로 격하되고 신정(新正)의 위세에 밀려 구정(舊正)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이제 ‘설’의 본이름을 되찾고 고유명절의 명예회복과 민족 최대 명절의 자리로 복귀하였다. 설은 5대 명절(설^한식^단오^한가위^동지) 중 하나로 그 해의 첫날이라는 뜻에서 원일(元日)이라 하고, 설날 아침을 원조(元朝) 혹은 원단(元旦)이라 말 한다.

설날의 명칭과 유래는 확실한 정설은 없으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1) 첫날이라 낮이 설어 설날이라 했다는 이야기와 2) 나이 먹기가 서러워 설날이라 했다고 전한다. 한편, 봄이 시작하는 날을 봄이 선다는 뜻으로 입춘(立春)이라 하고 가을맛이를 입추(立秋)라 하듯이, 3) 한 해가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 해가 서는 날이라는 뜻(立歲/立歲日/입세일)으로 ‘설’이라 한 것으로 본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는 견해로 보인다.

설은 크게 차례(茶禮)와 세배(歲拜)로 상징된다. 조상에 대한 차례와 어르신께 드리는 세배는 고유 미풍이다. 음식은 떡국이요 한과는 강정이다. 떡국의 떡가래는 마음대로 늘어나니까 수명도 늘어나라고 떡국을 해 먹었다 하며 ‘떡국 몇 그릇 먹었느냐’로 나이를 세기도 하였으니 떡국은 설의 대표음식이기도 하다. 놀이문화로는 연날리기^제기차기^널뛰기 등 겨우내 움츠렸던 하체 건강을 위한 것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설날의 풍속에는 반듯이 그 전날인 섣달 그믐의 풍속을 알아야 한다.

본시 송년이나 망년이란 말은 없었으며 섣달 그믐날을 수세(守歲 혹은 除夕/제석)라 하여 집안 곳곳에 등촉을 밝히고 한 밤을 꼬박 새웠다. 가는 세월이 아쉬워 밤의 시간을 붙잡고자 안방 건넌방은 물론 화장실이나 우물, 묘소의 작명등에 까지도 불을 밝혔다. 아이들에게는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겁을 주고, 그래도 잠에 취해 자는 아이는 눈썹에 분이나 밀가루를 발라 희어졌다고 놀려주기도 하였다.

한편 크리스마스이브에 양말에 선물을 받는 서양의 풍습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은 그믐에 신발을 안고 자는 민속이 있었다. 이는 야광귀(夜光鬼)라는 호기심 강한 귀신이 아이들 신발을 밤사이 신어보고 맞는 신발의 주인에게 병을 준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문 앞에 채나 얼게미를 걸어놓아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호기심 많은 야광귀가 그 채의 구멍을 세다가 날이 밝으면 신을 신어보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설 전날을 까치설이라고 한 것은 까치가 길조(吉鳥)로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다고 붙여진 이름이며, 설과 새해에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는 기대와 믿음에서 였다. 그 외에도 설날에 징과 북을 치고 때로는 폭죽을 터트리며 경쾌하게 온 마을을 순회하던 농악대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이는 새해에 액을 주는 잡귀를 쫓아내고 풍년과 행운을 축원하는 행사이기도 하였다.

한국에 한국인이 없다.

2006년! 목은해가 가고 새 아침이 밝았다. 고향을 떠나 어머니 품이 멀어지면 향수뿐 기억마저 희미해지는 법이다. 이처럼 중요하나 잊혀져 가는 것들이 있다. 우리 고유문화나 예절도 살기가 바쁘다보면 빈 가슴처럼 아쉬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제, 경제규모 세계10위권이라는 당당한 우리의 위상은 나를 재발견하는 각성의 계기가 되었고, 스스로 '엽전'이라던 자학은 '아! 필승 코리아'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자학과 불가능이 가능과 열정으로 바뀌면서 자랑스럽게도 세계가 우리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있다.

한 때 어려움도 잘못도 있었다. 내 것보다 남의 것과 새 것이 좋았다. 가난한 고향이 싫고 도시가 좋았으며, 헌 옷보다 새 옷은 언제나 꿈이었다. 한옥보다 양옥이 좋았고, 역사적 유물마저 부숴냈다. 김치는 부끄럽고 버터가 좋았으며, 고유는 낡은 것 새 것만이 좋았다. 대가족보다 핵가족이며, 부모보다 자식이 최고였다. 이제, 도시보다 전원주택이 그리워지고, 새 옷보다 해어진 청바지가 유행인 세상이 되었다. 버터는 웰빙(건강)의 적이고 김치가 세계적 음식이며, 신식보다 앤틱(고풍/낡음)이 고급인 세상이다. 핵가족의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정통과 효친문제가 틈새를 비집고 나왔다. 역사와 조상은 잘났어도 못났어도 소중한 내 몫임을 스스로 깨우쳐 가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우리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다. 고유문화 없이는 행세할 수 없는 지구촌이며, 외국과 차별성 없이는 경쟁력이 뒤져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의 특성을 연구한다며 관심들이 많다. 그들은 명절 때 고속도로가 주차장을 이루고 고향 따라 부모 찾아 떠나는 민족이동의 대 장관을 보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뿌리정신에 놀라고 효친사상과 우리의 독특한 가족제도를 경탄한다.

이런 우리가 우리를 모름은 왜인가? 1905년 일본의 을사조(늑)약과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 일제가 우리 민족혼과의 단절을 꾀한 것이 큰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국어^{역사} 고유문화를 빼앗고 창씨개명과 전국의 명산에 대못을 박는 만행과 민족자존과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우리 것은 엽전으로 전락하고 남의 것이 최고가 되었다. 해방 후는 사상분열과 6:25⁴¹⁹516쿠데타^{민주화운동} 등 격동기로 스스로의 정체성 회복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먹고살기에 바빠 가르칠 사람도 배울 사람도 없었다. 그나마 구전으로 전통의 맥이 이어져 온 것만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다보니 한국에 한국인이 없다는 지적은 어쩌면 당연하다. 빼앗긴 전통문화 100년을 되살려야 할 때이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것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200년의 역사라면 우리나라는 땅의 규모는 작지만 5000년이라는 긴 역사만큼이나 자랑스러운 고유문화와 전통예절을 가지고 있다. 엽전이 아닌 필승 코리아의 함성이 예절의 나라 전통의 나라에 울려 퍼지는 경술년이기를 기대하자!